

월간 실적보고

2017.09

- ▷ 볼륨과 ASP 상승 동시에 기대되는 4분기
- ▷ 시작이 매우 좋은 2018년 1월 예약률

Summary of 2017 Sep

1.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28.6%** 성장
-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입장권, Pass 등)을 합산한 수치
2.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16.6% YoY** 증가
- 패키지 **6.7%** / 티켓 **29.2% YOY** 증가
(11.2만명 / 10.7만명)
3. 유럽 **44%** 동남아 **31%** 일본 **24%** 남태평양 **15%** 미주 **10% (YoY)**
- 중국 제외한 모든 지역 두 자릿수 성장률

9월 Review :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성장률 28.6%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성장 16.6%, 송객인원 21.9만명
 패키지 인원 성장률 6.7%, 11.2만명. 전년 9월 기고 (20% YoY) 불구, 올해 8월을 저점으로 성장을 반등.
 티켓 인원 성장률 29.2%, 10.7만명. 4개월 연속 월간 10만명 이상 송출

9월 실적

(단위 : 명, %)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7	111,960	107,753	219,713
2016	104,942	83,421	188,363
YOY	6.7	29.2	16.6

패키지 YoY : 7월 3.4% → 8월 0.8% → 9월 6.7%

티켓 YoY : 7월 27.2% → 8월 21.7% → 9월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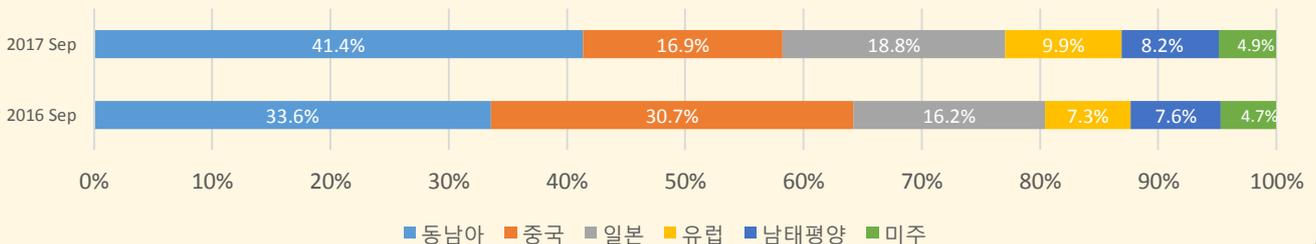
총송객 YoY : 7월 14.2% → 8월 9.9% → 9월 16.6%

지역별 성장 (YoY)

유럽 44.3% 동남아 31.3% 일본 23.9% 남태평양 15% 미주 10.1%

유럽 +44.3%, 8월 스페인 테러에도 불구 최근 3개월 중 가장 높은 성장률.
 동남아 +31.3%, 필리핀 계엄령 선포는 7~8월에만 제한적 악영향, 9월은 근거리 중 가장 높은 성장성.
 일본 +23.9%, 6개월간 두 자릿수 성장률, 인기가 꾸준한 지역.
 남태평양 +15%,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가장 꾸준히 성장 지속.
 미주 +10.1%, 전년 9월 87% YoY 성장의 높은 기저에도 두 자릿수 성장.
 중국 -41.4%, 8월과 유사한 수준의 역성장 지속.
 전년 9월 높은 성장에 따른 기고에도 불구 (20% YoY)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 두 자릿수 성장.

인원 비중



예약률 증감 (PKG)

(단위 : %)

	17년 10월	17년 11월	17년 12월	18년 1월
증감률	15.4	52.6	73.5	98.3

* 2017.09.30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4분기는 1~3분기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유럽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필리핀 계엄령 악재에서 두 달 만에 회복한 동남아가 또 하나의 성장 축이 될 것으로 예상. 10월은 여전히 두 자릿수의 높은 예약률 지속, 특히 연휴로 인해 수익성 (ASP와 마크업 등)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성장 기대. 11~12월은 근거리 지역의 수요 증가 등으로 좋은 예약 상황 지속. 4분기부터 중국향 여행 수요는 의미있는 수준의 점진적 개선 가능성 있음. 2018년 1월은 현시점 기준 매우 좋은 예약 상황. 여행 출발 4개월 전 예약률 측정으로 인해, 모집단의 수가 적어 변동폭이 클 수 있지만 2018년 시작이 매우 좋은 상황. 상대적으로 긴 연휴로 인해 여행수요가 2017년으로 쏠려 2018년의 여행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불식 가능한 수준.